

지역축제를 이용한 지역상징의 문화적 재구성과 정체성*

—장성군 홍길동 축제를 사례로—

추 명 희**

The Cultural Representation and Identity of Regional Symbols Using Regional Festival* — In Case of the Hong-gil-dong Festival in Jangseong, Chonnam —

Myung-Hee Chu**

요약 : 본 연구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전통과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한 지역축제를 통해 지역상징을 재창출하고 이를 지역활성화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는 전남 장성군을 사례로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 어떻게 지역의 상징 및 정체성으로 정립되고, 현재의 지역사회에 재구성되는가를 고찰한 사례연구이다. 장성은 조선의 유림 중 뛰어난 인물중의 하나인 하서 김인후와 그를 배향하고 있는 필암서원으로 상징되는 '선비의 고장'으로 알려져 왔고, 동학군의 활동에서 중요한 전기가 마련된 황룡강 전투지역과 한말 의병의 중요한 근거지였다고 하는 역사적 사실로 인해 근래에는 '의향'으로 정립되어 온 지역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홍길동전의 주인공인 홍길동의 생가로 추정되는 곳이 발굴되면서 홍길동을 지역상징으로 재구성하여 지역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홍길동축제'의 중심지로 알려진 곳이다. 홍길동축제는 올해로 5회째라는 비교적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장성군을 대표하는 지역축제로 자리잡아 가면서 홍길동 캐릭터를 이용한 지역로고, 생가터의 관광자원화 등 이와 관련한 다양한 지역문화경관을 창출하고 있다. 오랫동안 이 지역의 정체성의 중심에 있었던 '선비의 고장', '의향'으로서 장성은 홍길동축제의 역동적이고 외부적인 이미지를 강화시킨 이벤트 전략과 축제의 강한 시장지향적 속성이 창출하는 지역활성화라는 명분 앞에 '홍길동의 고장, 장성'이라는 전통의 창출과 재구성을 경험하고 있다. 전통의 재구성과 현재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홍길동축제는 이제 그동안 이 지역의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전통과 문화를 다양한 물리적 지역경관과 함께 어떻게 현재의 지평에서 불러내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이를 위한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에 진정한 지역통합 및 지역활성화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선비의 고장, 의향, 홍길동축제, 지역상징, 지역정체성, 지역활성화

Abstract : This study examined how historical facts of the past were established as a symbol or identity of a region and reorganized in the present local communities. Jangseong has reorganized regional symbols through a regional festival named Hong-gil-dong Festival based on its tradition and cultural resources and used them as a strategy for the regional revitalization. Jangseong was known as "a district of noble scholars" represented by the Philam Seowon(local school) enshrining Kim In-hoo, a superior one of the Confusion scholars of Joseon period. And it was considered as "a place of Justice" because of historical fact that it was an important base of Donghak movement and the struggle by righteous soldiers who fought for the country in the late Joseon period. Moreover, as the place which is assumed as a birthplace of Hong Gil-dong, a hero of the Hong Gil-dong story was excavated, the local government has reorganized Mr. Hong as a symbol of the region and has held the Hong Gil-dong festival for its development. In spite of its short history, the festival was established as a representative of Jangseong. It also created various regional cultural attractions such as regional logos of Hong Gil-dong and a tourist attraction of his birthplace. Jangseong reorganized its tradition for the regional revitalization through a business-oriented property of the event strategy enforcing a dynamic and external image. In the aspects of tradition reorganization and use for actual development, it is sure that the Hong Gil-dong Festival will work for true integration and revitalization of the region by providing experiences of reorganized regional tradition and culture along with various regional landscapes.

Key words : A district of noble scholars, A place of Justice, The Hong Gil-dong Festival, Regional symbols, Regional identity, Regional revitalization.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2-072-BL1018).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Grant(KRF-2002-072-BL1018).

**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Researcher, Honnam Culture Research Center, Chonnam National University)(fabiola89@hanmail.net)

1. 서론

1) 연구목적

한국의 지역축제는 1990년대 이후 세계경제적 변화에 따른 국내 경제구조의 재편과 지방자치제 실현 등으로 인해 각 자치단체들이 지역 활성화 전략으로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는 문화적 속성 중의 하나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축제를 통해 지역의 전통과 문화적 자원을 상품화함으로써 창출되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기존의 생산위주의 지역 통합전략이 지닌 한계에 대한 대안적인 문화 전략의 수단으로 축제를 적극 이용하고 있다. 이는 지역 정체성을 대내외적으로 표방하고 지역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증대시켜 통합성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지역축제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축제는 역사적 과정을 통해 뿌리내려진 지역정체성이 지역 주민들에 의해 가장 잘 반영되는 장인 동시에 지역의 '일부' 주역들에 의해서 지역정체성이 재규정되거나 변모해 나갈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한다. 축제가 지역민들 개인의 정체성과 나아가 지역성을 반영하고 규정짓는 역할을 한다고 할 때, 이와 관련된 축제연구는 지역 정체성에 무게를 두는 지역개념의 이론적 구성에 대한 현대의 연구 성향과도 그 맥을 함께 하며 최근 축제연구에서 축제가 갖는 지리학적 가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조명래, 1996; 정선희, 1999).¹⁾ 최근의 세계화와 지방화의 흐름 속에서 새롭게 규정되고 기능하는 지역은 이제 지역적 주체가 형성되는 장이 되고 있고, '정체성이 형성되는 지역'으로 변화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지리적 요소를 바탕으로 언어와 종교를 포함한 문화, 경제, 정치 등의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된 지역정체성은 지역사회의 특정 기념물이나 경관이라는 공간적 차원과 함께 주기적인 축제나 기념행위 등 시간적 차원에서 상징화되어 표현된다. 이 과정에서 지역이미지는 이를 확대하는 기념행위나 축제에 의해 확산되기 쉽기 때문에 최근 각 지역의 축제는 지역정체성을 만들어내고 확인하는 기제로 작용하게 된다(정근식, 1997). 이러한 현상은 특히 지방자치제가 시작되면서 각 지자체들이 그 지역

의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전통과 문화자원을 이용하여 지역을 상징하는 축제를 만들고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민의 통합과 연대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일련의 문화전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전통과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한 지역축제를 통해 지역상징을 재창출하고 이를 지역 활성화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는 전남 장성군을 사례로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 어떻게 지역의 전통 또는 정체성으로 정립되고, 현재의 지역사회에 재구성되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예로부터 장성군은 조선의 유림 중 뛰어난 인중의 하나인 하서 김인후의 필암서원으로 상징되는 '선비의 고장'으로 알려져 왔고, 동학군의 활동에서 중요한 전기가 마련된 황룡강 전투지역과 한말 의병의 중요한 근거지였다고 하는 역사적 사실로 인해 근대에 '의향'으로 정립되어 온 지역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홍길동전의 주인공인 홍길동의 생가로 추정되는 곳이 발굴되면서 홍길동을 지역상징으로 재구성하여 지역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홍길동축제'의 중심지로 알려진 곳이다.

장성군의 이러한 다양한 역사적 전통과 경험은 '선비의 고장', '의향', 그리고 최근에는 '홍길동축제'로 이어지면서 홍길동축제를 중심으로 한 장성군의 지역상징과 지역정체성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면서 새롭게 재구성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장성은 성군관 대성전(大成殿)에 배향되어 있는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1510~1560)의 고향이라는 사실과 그를 배향하고 있는 필암서원의 존재로 인하여 예로부터 소위 '선비의 고장'으로 불리었으며, 지역민들의 자부심 또한 대단하였다. 아울러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장성 남문창의(南門倡義)를 일으킨 선열들의 의로움을 '선비의 정신'으로 받아들여 지역사회의 정체성으로 삼아왔다. 또한 장성은 동학 및 한말 의병의 현장으로써 이에 기반한 '의향'이라는 정체성을 형성하여 왔고, 이러한 장성군의 역사적 정체성은 소위 '선비정신론', 호남의향론'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선비고을', '의향'으로 대표되는 장성지역의 지역정체성이 어떠한 과

정을 거쳐서 장성의 지역상징 및 정체성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지역의 역사적 사실과 경험에 기반한 장성지역의 정체성이 오늘날 '홍길동축제'라고 하는 외부적인 이미지를 강화시킨 지역축제를 통해 어떻게 재구성되고 있는지의 과정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첫째, 장성지역 선비정신의 역사적 소재와 특징, 의병활동과 한말사회운동, 그리고 지역향토사 연구 활동을 통한 지역정체성의 정립과정 등을 중심으로 선비정신과 의항론이 장성의 지역상징 및 정체성으로 형성되고 전개되어 온 과정을 분석한다. 둘째, 장성의 지역상징 및 정체성의 문화적 재구성의 과정을 홍길동의 지역상징화와 홍길동축제의 성장과 정분석을 통해 고찰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홍길동축제로 대표되는 장성지역의 홍길동 관련 문화전략의 쟁점 및 현실을 고찰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전통과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한 지역축제를 통해 지역상징을 재창출하고 이를 지역 활성화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는 전남 장성군을 사례로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 어떻게 지역의 상징 및 정체성으로 정립되고, 현재의 지역사회에 재구성되는가를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목적에 위해 일차적으로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조사지역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기존 연구를 검토함으로써 현지조사와 분석에 필요한 1차 자료를 수집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헌자료는 기존에 발간된 향토지와 장성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표조사보고서, 그리고 장성의 지역향토사 연구단체에서 편찬한 자료집과 연구서들이다. 이러한 자료수집과 분석을 토대로 '선비고을', '의항'의 전통이 장성의 지역상징 및 정체성으로 형성되고 정립되어온 과정을 분석하였고, 이와 더불어 문헌자료와 구술의 비교방법 등도 활용하였다. 또한 1990년대 후반 홍길동담론의 구체적인 현실화의 결과인 홍길동의 지역상징화 전략과 축제화 과정을 통해 장성지역의 지역상징 및 정체성이 재구성되는 과정에 대한 분석은 장성군청에서 간행된 각종 자료집과 보고서, 그리고 홍길

동을 주제로 검색한 광주·전남지역 신문과 전국 일간지를 참조하였고, 축제의 성장과정에 대한 참고자료로서 2003년 5월 3일부터 5월 5일까지 홍길동축제 관광객 분석을 실시한 정강환의 연구 성과를 인용하였다. 한편, 이러한 자료수집과 분석을 토대로 홍길동의 지역상징화와 축제화를 주도했던 중심주체들인 당시 장성군청 실무자들과 장성문화원 관계자들 그리고 선비고을, 의항을 대표하는 중심주체들인 마을유림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와 참여관찰, 구술자료 수집 등을 통해 홍길동 담론의 지역상징화 전략과 축제화 과정에서 도출된 쟁점 및 전망 등을 고찰하였다.

2. 장성의 지역상징 및 정체성의 형성과 전개

1) 선비정신의 역사적 소재와 특징

소위 '선비의 고장', '문향'으로 대표되는 장성의 역사적 정체성의 중심에는 호남인물로는 유일하게 문묘(文廟)에 배향되어 있는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와 그를 제향(祭享)하고 있는 필암서원이 자리하고 있고, 이는 장성지역 정체성의 형성과 전개 과정을 이해하는 첫 번째 코드이다. 이와 더불어 장성지역 특유의 선비문화전통이 형성되고 전개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사적 전기를 마련한 사건은 기묘사화(己卯土禍, 1519)²⁾를 들 수 있고, 이로 인해 낙향한 재지품관과 사족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사람들의 활동은 장성지역뿐만 아니라 호남 사림의 맥을 형성하고 발전케 한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장성지역은 예로부터 '호남팔불여(湖南八不如)'중 '문불여장성(文不如長城)'이라 칭하여 지듯 '사상문학(士尙文學)'³⁾이라 하여 많은 학자와 선비를 배출한 지역으로 유명하다. 장성은 호남의 인물로는 유일하게 성균관 대성전에 배향되어 있는 하서 김인후(1510~1560)를 비롯하여 고봉(高峰) 기대승(奇大升, 1527~1572)⁴⁾,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 1798~1876)⁵⁾과 같은 대유학자와 많은 사람들을 배출한 곳으로 사족들의 활동이 어느 지역보다 활발히 전개되었던 지역이다. 그 중 하서 김인후는 사화를 피하여 낙향한 사림 가운데 장성의 사림형성과 유학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으로 장성지역은

물론 호남지역 전체 사림들에게까지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컸으며, 조선전기 호남사림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이다. 그의 학문적 명성은 고봉(高峰) 기대승(奇大升, 1527~1572)과 함께 호남지방 성리학의 2대 산맥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하였고,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 역시 이 지역에서의 사족적 지위기반을 확고히 하는데 일조하였다. 장성의 이러한 역사적 전통은 '선비정신', '선비의 고장'으로서 백암산을 중심으로 한 장성문화권을 형성하였고, 이는 한국유학사상 뛰어난 유학자들을 배출하였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장성지역이 이와 같이 조선시대 호남 유학의 중심지로서 장성문화권을 형성하고 전개해나갈 수 있었던 역사적 배경에는 중종 14년(1519)에 발생한 기묘사화(己卯士禍)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중종조 이전까지 호남출신의 유학자로서 중앙의 정계에 두드러진 업적을 남긴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드물지만, 호남인이 조선조 유학사상의 주역으로 참여하고 새로운 세력이나 하나의 학파로서 자기의 사상적 의지를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중종조 초기 기묘사림파의 일원으로 참여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기묘사화를 전후하여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파들이 제거 당하고 사림파의 중앙에서의 영향력은 줄어들게 되었지만, 향촌에서는 기묘사화로 화를 입은 기묘명현(己卯名賢)들을 본받게 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그 학문적 맥이 이어지고 더욱 발전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장성을 중심으로 한 호남의 사림도 바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그 맥을 형성하였고, 비록 피화를 받았지만 도학정치(道學政治)를 주장했던 기묘사림(己卯士林)의 사상적 전통을 잇고 그것을 실천해간 후진들이 계속 이어져 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장성의 이러한 역사적 전통과 경험은 백암산을 중심으로 한 장성문화권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토대가 되었고, 이는 특히 하서 김인후를 비롯하여 고봉 기대승, 노사 기정진 등 한국유학사상 뛰어난 유학자들의 배출로 이어져 예로부터 이 지역은 '선비의 고장'으로 불려 왔다. 이와 관련해서 장성지역에는 하서 김인후를 제향하고 있는 필암서원⁶⁾을 중심으로 많은 서원(書院) 및 사우(祠宇)⁷⁾들이 존

재하고 이는 '선비정신', '문향'으로 상징되는 장성의 지역정체성과 지역이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선비의 고장', '문향'으로 상징되어온 장성의 이러한 전통은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장성 남문창의(南門倡義)를 일으킨 선열들의 의로움을 '선비의 정신'으로 받아들여 '문향'에 이어 '의향'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지역정체성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의향'전통에 관한 담론은 최근 홍길동 축제를 통해 '문향'과 '의향'이 결합한 '문무를 겸비한 고장'이라는 지역상징 및 정체성의 창출로 새롭게 재구성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특히 '의로움'에 대한 자부심으로 표출된 '의향전통'에 관한 담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 의향론(義鄉論) : 의병활동 및 동학농민혁명을 중심으로

하서 김인후와 필암서원으로 상징되는 '선비정신'에 이어 장성의 지역정체성의 역사를 파악하는 두 번째 코드는 '의로운 고장'이라고 하는 '의향'의 전통이다. 장성 사람들이 자신의 고장을 '의향'으로 받아들이는 역사적 뿌리는 1592년 임진왜란 당시 '남문창의'에서 출발한다. '남문창의'란 임진왜란 당시 선조 25년(1592) 7월 20일에 김경수(金景壽), 김제민(金齊閔), 기효간(奇孝謙), 윤진(尹軫) 등이 전라도 일대에 격문을 돌려 의병을 모집하고, 당시 장성현감 이귀(李貴)의 협력을 얻어 남문에 의병청을 설치, 의병활동을 한 것을 말한다.⁸⁾ 김경수를 맹주(盟主)로 추대하고 김제민(金齊閔)을 의병장으로 삼았는데, 의병군은 북으로 진군하여 직산·진성·용인 등지에서 많은 왜병을 사살하는 등 큰 전과를 올렸다.

장성 지역민들은 남문창의를 국난을 당하여 장성 선비의 기개를 높이 보여준 사건으로 자부하면서 그 근거를 '의(義)⁹⁾와 '리(理)'를 숭상하는 선비정신에 두고 이러한 선비정신이 국난을 계기로 의병정신으로 발현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¹⁰⁾ 장성 지역민들은 선비정신의 중추를 형성하고 있는 이러한 '義'정신을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생명을 버리면서 투쟁하는 용기의 원천으로 보았고, 이는 '의로운 고장', '저항정신'으로 상징되는 장성인의

중요한 기질로 강조한다.¹¹⁾ 남문창의 이후 이러한 의향전통에 대한 장성인들의 자부심은 한말 호남 의병활동의 중심지로서 장성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역사적 사건들과 인물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기념한 여러 문헌 및 유적 등에서 자주 확인할 수 있다. 그 내용의 중심에는 개화기 외국세력의 침투에 대항하여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위정척사운동의 출발이 된 장성 출신 노사 기정진의 병인소(丙寅疎)와 1895년 국모시해사건(올미사변)과 뒤이은 단발령에 반발하여 호남지역 의병활동을 주도했던 송사 기우만, 성재 기삼연 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한말 호남의병의 중심지로서 장성지역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의병활동은 장성선비정신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의향'이라고 하는 지역상징 및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오랜 동안 선비의 고장, 의병활동의 중심지로 알려진 장성의 이미지와 상징은 주로 다수의 서원 및 사우를 중심축으로 장성을 영남의 안동에 비견하여 그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향토문화개발협의회, 1977, 40). 따라서 장성 지역민들은 항상 자신의 고장을 '선비의 정신'이 살아 있는 '문향'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아울러 의를 실천하는 '의향'이라는 점에 오랜 자부심을 가져 왔다.

한편, 이러한 의향전통에 대한 담론에 있어서 최근 새롭게 재조명되고 있는 역사적 사건은 한말 동학군의 활동에서 중요한 전기가 마련된 장성 황룡강 동학농민전투¹²⁾이다. 사실 황룡강 동학농민전투는 선비정신과 의향활동의 유기적 결합을 통한 장성의 지역정체성 형성과정에서 있어서 그동안 크게 부각되지 못한 이 지역의 역사적 자원 중의 하나였다. 일례로 그동안 장성지역 향토사 연구를 주도하면서 지역정체성의 정립작업을 추진해왔던 이 지역 연구단체 및 문화단체들이 편찬한 각종 문헌 및 자료집(1973년~1990년대 중반까지)¹³⁾의 내용을 보면 관련 내용의 대부분이 선비정신과 의병활동의 역사적 전개와 의의를 강조하면서 '문향'과 '의향'이라는 지역상징 및 정체성의 확립에 중점을 반면, 장성의 동학농민전투의 역사적 의의와 이 지역과의 관련성 등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장성 황룡강 동학농민전투와 의향전통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작업들을

시작으로 장성은 그동안 다른 지역전통에 비해 부각되지 못했던 이러한 역사적 자원을 기존의 지역전통으로 재구성하고 연결시키면서 복합적인 지역상징의 창출을 시도하고 있다. 즉 1994년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기념하여 장성지역에 동학농민군승전기념공원 및 기념탑을 조성하고, 1995년에는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동학농민전쟁과 장성과의 관련성을 조명하는 등 일련의 활동을 통해 그동안 선비전통과 의병활동을 중심으로 전개된 의향담론에 선비 또는 유림이 아닌 '농민'이 주체가 된 역사적 사실을 지역전통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전북 고부에서 일어나 전국적인 규모로 전개된 반봉건·반외세 투쟁이었고, 황룡강전투 이후 동학농민군은 전라도 전역에 집강소(執綱所)¹⁴⁾를 설치하여 역사상 유래 없는 집강소에 의한 농민통치를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특히 유림이나 지방의 토호세력이 강했던 장성에서는 신분제의 철폐와 평등세상을 지향하는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어느 지역보다 활발히 전개되었고, 이러한 상황은 장성의 유림이나 양반에게는 위협적인 수밖에 없었다(장성군사, 2001). 따라서 오랫동안 유림 중심의 선비정신과 의병정신을 지역의 상징으로 삼고 자부심을 가져온 이 지역에서 특히 유림과 양반세력을 견제했던 동학농민군의 활동은 그것의 역사적 의의가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이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의 중심에서는 크게 부각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94년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기념하여 장성지역에서 진행되었던 일련의 활동들을 통해 최근 장성에서는 유림과 선비들이 주체가 된 의병활동과 다른 한편으로 농민이 주체가 된 동학농민혁명의 중심지로서 갖는 장성의 역사적 사실과 전통이 '의향'이라는 지역상징과 지역정체성으로 재구성되면서 서로 결합하거나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선비정신과 임란시의 의병활동, 그리고 동학농민혁명과 한말 의병활동의 중요한 근거지로서 장성은 '의로운 고장'이라는 지역정체성을 정립하고 이를 지역홍보 및 지역활성화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의 구체적인 결과로서 현재 장성지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활성화 전략의 핵심은 그동안 전설과 민간 구담으로만 전해져 오던 '장성출신 홍길동'에 관한 담론의 현실화이며, 이는 홍길동 축제의 개최와 생가터 복원, 홍길동의 지역캐릭터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학술대회 개최 및 학계의 보고와 유적지 건립을 통해 장성의 황룡강전투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신분제도의 타파와 평등사상 구현에 역점을 두었던 동학농민 정신과 장성지역에서의 활동이 강조됨에 따라 '장성출신 홍길동'담론은 지역전통의 재창출과 현재적 활용이라는 맥락 속에서 새롭게 재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3) 지역향토사 연구활동을 통한 지역정체성의 정립

장성 지역민들은 '선비의 고장' 또는 '의향'이라고 하는 지역정체성과 이러한 향토사에 대한 자부심으로 인해 일찍부터 향토사 연구를 시작하였고, 그 성과와 영향력은 이 지역의 정체성의 형성과 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장성의 지역상징과 정체성의 형성 및 정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이 지역 향토사 연구의 주요 활동을 중심으로 지역전통의 활용을 통한 지역민들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이 어떤 맥락에 놓여있는가를 고찰해보고,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이 어떻게 현재의 지평에서 불러내져 활용되는가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장성의 지역향토사 연구활동은 크게 1973년 결성된 '향토문화개발협의회'(이하 향문회로 약칭)의 주도적인 활동과 1982년 『장성 마을사』 편찬사업을 계기로 본격적인 향토사 연구를 시작한 '장성문화원'의 활동을 두 축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무엇보다 장성의 선비정신과 의향이라고 하는 지역전통을 지역상징과 정체성으로 정립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향문회'의 활동이다. 향문회는 향토사 연구활동을 통해 지역정체성을 정립하고, 지역전통의 현재적 활용과 재구성이라는 차원에서 현재까지도 그 영향력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향문회는 '장성'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어 전국적인 향토문화운동을 확산시키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을 만큼 장성 지역사와 나아가 전국 향토사 연구단체들에 끼친 영향력

은 컸다고 할 수 있다.

향문회는 1972년 7월 25일 '향토문화개발협의회' 창립을 위한 간담회를 시작으로 향토사 연구와 지역정체성 정립 작업을 추진해왔다. 이는 전국적인 단위로 볼 때도 상당히 전향적이고 선구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¹⁵⁾ 향문회의 초창기 활동을 『장성 향토문화』의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주로 '내 고장 문화전통을 찾아 가꾸어 긍지를 가지고, 내 고장의 사회경제적 향상으로 살기 좋은 고장을 이룩하자'는 목표 하에 농촌사회와 향토문화 제문제(창간호), 지역사회개발 제문제(2집), 장성 정신사의 흐름(3집), 정신문화와 지역개발의 방안(4집) 등에 관해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즉 향문회는 지역사 연구를 통해 지역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주안점을 둔 것으로 파악된다. 향문회의 제반 활동 부문 중 특히 향문회가 중점을 둔 사업은 '내 고장 인물에 대한 학술조명과 인물업적'에 대한 체계화 작업이었다. 즉 1979년 노사 기정진선생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 1982년 장성남문창의 390주년 기념 학술대회, 1990년 고향철학사상 학술대회, 1991년 제봉사상과 구국정신 학술대회, 1992년 눌재 박상의 문학과 의리사상 학술대회, 1993년 하서 김인후의 도학과 문학사상 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연구지를 발간하는 등 초창기 향문회 창립목표였던 '새로운 향토인상 정립을 위한 정신적인 힘과 문화발굴'에 역점을 두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학생들의 향토문화 교육의 지원사업도 병행하였다. 1973년 장성 관내 문예·그림발표를 중심으로 문학축전을 개최하고 장성문화원 사업으로 정착시켰으며, 1984년에는 전남도내 교육감기 애향 문예상 시상을 통해 학생들의 애향정신을 고양시켰다. 그리고 장성 교육청의 『장성 선비의 얼』, 『장성 전통문화』 등의 향토교재 편찬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장성지역 향토사 연구의 일련의 활동들은 향토사 연구를 통해 지역정체성을 정립하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주안점을 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향문회는 1990년대 들어 그동안의 향토사 연구에서는 부각되지 못한 장성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과 자원을 새로운 지역정체성으로 재구성시키면서 복합적인 지역상징의 창출을 시도하였다. 즉 한말 동학군의 활동에서 중요한 전기가 마련된 황

룡강 전투지역으로서 장성을 상징하는 기념비 건립사업과 기념공원 조성을 위한 일련의 활동이 그것이다. 향문회는 1994년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기념하여 장성 황룡강 전투의 역사성을 재현하고, 황룡면 신호리에 동학농민군 승전기념탑(사적 406호)을 세우는데도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는 이전까지 장성지역 향토사 연구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역사적 사실을 '의향'이라고 하는 지역상징과 정체성 정립작업의 연장선상에서 새롭게 재해석하고, 지역전통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지역사회의 맥락에서 새롭게 해석되고 평가되면서 그것이 기념비나 기념공원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거치는 시기와 맞물려 장성에서는 또 하나의 지역전통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는데, 바로 '장성출신, 홍길동'담론의 현실화이며, 최근의 홍길동 축제의 개최가 그것이다. 이것은 '선비의 고장', '의향'으로 정립되어온 지역 정체성의 토대 위에 그동안 공식적인 기억과 역사적 사실 속서 암묵적이고 감추어진 부분으로 존재하던 민중의 기억인 동학농민혁명의 근거지로서, 그리고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맥을 같이하는 홍길동의 출생지로서 장성의 지역상징과 정체성이 새롭게 재구성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3. 지역상징의 문화적 재구성 과 축제화

1) 홍길동축제를 통한 지역전통의 재구성 : 홍길동의 지역상징화

장성 홍길동축제는 소설 속의 인물인 홍길동을 매개로 하여 1999년부터 시작되어 올해(2003년 현재)로 5회째 개최되고 있는 이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축제로서 장성군이 지역이미지 제고와 경쟁력 확보방안을 위해 추진 중인 핵심적인 지역 활성화 전략의 하나이다. 홍길동 축제는 지금까지 허균이 쓴 최초의 한글소설 속의 주인공으로만 알려졌던 홍길동이 장성군 황룡면 아곡리 아치실 마을에서 태어난 실존인물이라는 전제 하에 축제의 전반적인 기본 토대를 구성하고 있다.

홍길동축제의 개최근거가 되고 있는 홍길동의

실존인물 여부와 장성출신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에 관한 연구사적 토대는 1969년 숙명여대 이능우(李能雨) 교수가 『조선왕조실록』 광해군일기와 『중종실록』, 『선조실록』 등의 기록을 인용하여 학계에 보고한 것이 그 시작이다. 이후 1981년 동국대 김기동 교수(당시 한국학연구소장)가 문헌설화 20종을 정리, 『한국문헌설화』 10권을 발간하면서 조선조 3대 설화집인 『계서야담』, 『청구야담』, 『동야취집』, 『해동이적』 등에 홍길동전의 줄거리를 이루는 홍길동의 행적과 활동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학계에 보고하고, 이를 언론에 소개하기도 했다.¹⁶⁾ 한편으로, 실존인물 홍길동이 전남 장성에서 출생했으며, 이를 증명하는 생가터와 홍씨들의 고종(古塚)이 있다는 사실이 학계와 언론에 처음 알려진 것은 1974년 당시 설성경(현 연세대 국학연구원 부원장) 교수가 처용암(북이면 원덕리 갈애바위)의 조사차 장성지역을 답사하던 중 향토사학자 변시연씨로부터 홍길동 생가터와 관련된 곳을 전해 듣고 이를 신아일보(현 경향신문)에 소개하면서부터이다.

당시 장성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입을 통해 홍길동이 장성군 황룡면 아곡리 아치실 마을에서 태어났으며, 홍길동의 생가터와 홍길동이 먹고 자랐다고 하는 홍길동샘이 있다고 하는 전설과 민간 구담¹⁷⁾이 전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까지도 장성지역에서는 홍길동과 관련된 담론과 역사적 사실의 진위여부는 이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과 지역전통에서 '선비정신'과 '의향'담론에 비해 주목을 끌지 못했다. 이러한 사실은 70년대부터 장성지역에서 활발히 전개되었던 향토사운동과 그에 따른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한 일련의 과정, 예를 들면 지속적인 향토사 관련 문헌편찬이나 토론회 및 학술대회 개최 등의 내용을 보더라도 홍길동은 이 지역의 정체성과 지역전통에서는 어떠한 위치도 차지하지 않고 있는데서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존인물 홍길동', '장성출신 홍길동'이라고 하는 홍길동 관련 담론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이것이 장성을 상징하는 지역전통으로 내세우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1997년 강릉시와의 '홍길동 연고권 논쟁'이 시작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홍길동 연고권 논쟁은 1997년 2월 장성군이 홍길동 생가터의 복원사업을 시작으로 이를 소재

로 한 관광자원화 방안을 검토하던 중 같은 해 3월 강릉시에서도 소설 *홍길동전*의 저자인 허균 선생의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홍길동을 강릉시의 마스코트로 정한다고 하는 언론보도¹⁸⁾를 접하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이 논쟁은 정부가 정한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해 각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축제 및 이벤트 개발 등과 같은 지역 활성화 전략으로 강릉시와 장성군이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맞붙게 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오랜 기간 신사임당과 그의 아들 율곡으로 상징되는 강릉시와 허서 김인후와 호남사람의 중심지로 대표되어 온 장성군이 모두 지역특유의 보수적인 이미지와는 상반되는 인물인 홍길동을 지역상징으로 내세우면서 연고권 논쟁을 벌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따라서 당시 중앙일간지 및 지역일간지에서도 이를 여러 차례 기사화¹⁹⁾하면서 두 지역간 경쟁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장성군은 이러한 언론의 이례적인 관심과 함께 1998년 SBS 드라마 *‘홍길동’* 방영을 계기로 홍길동의 출생지로서 장성군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이를 자원화하기 위한 전략수립을 빠르게 진행시켜 나갔다. 우선 장성군은 1974년 홍길동 출생지로서 장성을 언론에 최초로 소개한 연세대 설성경 교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학연구원에 *‘홍길동 학술연구’* 용역을 의뢰하였다. 그 결과는 1차적으로 「실존인물 홍길동의 생애 재구(I)-출생과 성장, 국내 활동부분을 중심으로」(연세대 국학연구원, 1997, *東方學志* 96집)라는 논문으로 발표되었고, 장성군과 연세대국학연구원의 주관 및 주최로 서울전경련회관에서 '97년 11월에는 *‘홍길동 학술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와 함께 장성군은 1998년 홍길동 캐릭터 개발, 홍길동 생가터 주변개발계획, 홍길동 기념사업 등 홍길동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하기에 이르렀고, 1999년에는 홍길동축제가 개최되면서 홍길동은 장성의 지역전통과 정체성의 역사에서 이 지역을 대표하는 새로운 지역상징으로 새롭게 창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후 2002년 장성군과 홍길동축제 추진위원회의 주관으로 열린 *‘홍길동 국제학술 심포지움’*은 그동안 강릉시와 장성군간의 연고권 논쟁을 일단락 시키면서 홍길동은 이제 장성을 상징하는 지역전통으로 정립되기에 이르렀다.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홍길동의 5대조 홍규는 남양부원군이었는데, 무진참화(戊辰慘禍)로 호남에 피신하였으며, 홍길동의 부친 홍상직은 전남 장성에 정착하게 된다. 홍길동은 홍상직의 서얼로 황룡면 아치실에서 태어났다. 이후 홍길동은 1500년까지 공주 무성산성(茂盛山城)을 근거지로 삼아 많은 추종세력을 결집하여, 자신의 정치이념인 만민평등의 민주공동체운동을 펼쳐갔으며, 대동적 활동 끝에 자수나 체포에 의해 강상죄(綱常罪)로 예금부에서 문초를 받았다. 이후 1501년 일본 유구(琉球)로 탈출한 다음, 팔중산(八重山) 지역에서 크게 활약했으며, 일본에서는 그를 ‘오야케 적봉(赤蜂) 홍가와라’라고 불렀다.(2002년 홍길동 국제학술 심포지움 자료집에서 발췌)

이상의 연구결과가 갖는 사실성과 정확성에 대한 학계의 입장은 아직도 그 의견이 분분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 성과는 그간의 이루어졌던 홍길동과 관련한 장성지역 문화전략을 활성화시키는데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홍길동은 오랫동안 ‘선비의 고장’, ‘의향’으로 상징되어온 이 지역의 정체성의 역사에서 장성을 대표하는 새로운 지역상징으로 새롭게 재구성되고 있고, 나아가 장성출신 홍길동을 일본 오키나와 열도를 지배한 지역영웅으로 부각시킴으로써 민족적 우월감을 자부하는 측면도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오랫동안 ‘선비의 고장’, ‘의향’의 전통을 이 지역의 오랜 역사적 정체성으로 정립시켜온 장성지역에서 사실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던 *‘홍길동’* 담론은 1997년 시작된 강릉시와의 홍길동 고향 연고권 논쟁을 기점으로 학술연구용역 및 일련의 문화전략을 통해 장성의 새로운 지역전통 및 상징구축으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홍길동축제의 개최를 통해 의를 구현하는 ‘의적’으로서 홍길동을 장성지역의 ‘의향’전통과 맥을 같이하는 영웅적 인물을 강조함으로써 외부적으로 역동적인 장성지역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한편, 축제를 통해 이를 상품화하고 있는 것이다.

2) 홍길동축제의 성장과정

현재 장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 활성화전략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홍길동 관련 관광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 홍길동축제는 1997년 강릉시와의 홍길동 고향 연고권 논쟁으로부터 가속화된 일련의 사업들, 즉 홍길동 학술연구 용역 및 학술대회 개최, 홍길동 캐릭터 개발사업, 홍길동생가복원 사업으로 이어진 장성군의 문화전략을 외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장성출신의 실존인물, 홍길동의 고향'으로서 지역 이미지와 상징의 재구성이라고 하는 지역민의 정체성 구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03년 현재 5회째 개최되고 있는 홍길동축제는 1997년 홍길동관련 학술연구 용역 및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한 연구사적 토대와 2001년 홍길동 생가터 유구 발굴조사를 통해 획득한 고고학적 근거 등을 토대로 홍길동축제의 핵심주제인 '장성출신의 실존인물, 홍길동'의 고향으로서 장성군의 이미지를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축제프로그램의 구성 및 행사의 전반적인 성격 또한 홍길동의 고향으로서 갖는 장성군의 이미지와 상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이를 상품화하는데 주로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 특히 '홍길동과의 만남'이라는 프로그램은 홍길동이 장성에서 태어난 실존인물임을 증명하는 학술적 자료를 시작으로 홍길동의 일생과 그와 관련된 전설 및 인물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진열함으로써 축제에 대한 정보제공과 함께 교육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축제방문객의 축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뗏목타기 체험'은 축제장의 지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울도국 구역을 설정하고 구역간의 이동을 뗏목을 통한 체험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고안한 홍길동축제의 대표적인 체험 프로그램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³⁰⁾ 이 밖에도 활빈당퍼포먼스, 울도국 가는길, 홍길동 추모제 등의 프로그램은 홍길동 전시관을 통해 홍길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직접 프로그램으로 통해 체험해 보게 함으로써 축제방문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즉 홍길동의 생애를 과정별로 퍼포먼스를 통해 재연함으로써 홍길동에 대한 스토리메이킹이 있는 축제의 기반 구축이 3회부터 꾸준히 정착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표 1).

표 1. 홍길동축제 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2003년)

구분	내용
기본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막식 · 홍길동 추모제 · 홍길동 선발대회 · 홍길동 씨름대회 · 마당극 「홍길동전」 · 5월의 향연
일반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빈당 퍼포먼스 · 어린이 홍길동축구대회 · 문향축전 · 무술시범 · 도립국악단 공연 · 관광객 장기자랑
부대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길동과의 만남(전시관) · 울도국 퍼포먼스 · 나룻배 짓기 체험 · 뗏목 타기 체험 · 홍길동캐릭터그리기 · 홍길동 불꽃놀이 · 체험 문화교실 외 다수

자료: 장성군청 문화관광과

매년 5월 어린이날을 전후로 3일 동안 개최되는 홍길동축제는 1997년 가을에 열리는 백양단풍축제 기간동안 병행하여 일부 개최되었던 것을 1999년 1회 홍길동축제로 확대·개편한 것이다. 홍길동축제의 성립 이전까지 장성지역을 대표했던 축제는 백양사 주변의 단풍을 소재로 하여 열리던 '백양단풍축제'였다. 그러나 1997년 홍길동 고향 연고권 논쟁을 소재로 한 기사가 외부, 특히 중앙일간지 등에서 다루어지면서 오히려 장성군은 이 기회를 장성지역의 인지도와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전환점으로 인식하고 이와 관련한 사업들을 빠르게 진행시켜 나갔다. 따라서 당시로서는 실존인물이자 장성출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선적으로 고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홍길동 생가터 발굴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등장했고, 이를 위해 각종 문헌연구를 통한 학술결과를 토대로 생가터 발굴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장성군 황룡면 아치실 344번지 남양홍씨 35대손인 홍성두씨 집 부근에 2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5세기형 전통한옥 8동, 110평과 청소년수련관 8동, 120평 규모로 이루어진 홍길동 생가터를 복원했으며, 여기에서 200미터 내려간 지점에서 '길

동생'을 발굴하여 그 사실성을 보다 구체화시켰다. 홍길동축제는 이와 같은 축제개최목적에 부합하는 일련의 환경조성, 즉 홍길동 생가터 발굴과 역사적 고증자료 수집을 통한 연구사적 토대가 마련됨으로써 마침내 1999년 장성의 상징적인 인물로써 홍길동을 내세운 이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축제로 선정되었고, 주요 행사는 홍길동 생가터와 축제행사장을 중심으로 개최되고 있다.

한편, 장성군에서는 홍길동과 관련한 문화관광사업 중 생가터 발굴과 함께 홍길동의 지역상징화 작업을 위해 홍길동 캐릭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특히 시기적으로 매년 5월 어린이날을 전후로 개최되는 축제의 성격상 어린이와 청소년을 겨냥한 캐릭터개발에 힘쓰고 있는데, 이를 통해 장성군은 1997년 12월부터 1999년 3월까지 총 73여 종의 홍길동 캐릭터를 개발하고, 106건의 의상 및 상표등록을 완료한 상태이다. 홍길동 캐릭터 사업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문화사업이자, 21세기 지식산업으로 장성군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문화전략이다. 이를 통해 장성군은 그동안 소설 속의 인물로만 축소되어 전해오던 홍길동을 장성출신의 실존인물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재조명하고, 일본 오키나와까지 진출한 지역 영웅으로 부각시키고, 한편으로 축제기간 캐릭터상품 판매를 통해 지역홍보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꾀하고 있다. 실제로 5회(2003년) 축제기간 동안 관광객들의 쇼핑품목 조사결과²¹⁾ 전체의 34.7%가 홍길동캐릭터 상품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였다. 이는 3회 축제의 17.4%와 비교해 볼 때 약 2배 가까운 증가율로써 금년(2003년) 신세대 취향에 맞도록 디자인이 새롭게 개발된 홍길동캐릭터가 관광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999년 1회 홍길동축제를 시작으로 올해 5년째를 맞고 있는 홍길동축제는 이처럼 소설 속의 인물인 홍길동을 매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캐릭터상품판매와 같은 문화마케팅 전략을 통해 장성 지역의 새로운 지역상징과 이미지를 창출하고 있다. 즉 홍길동축제는 오랫동안 선비정신, 의향으로 대표되는 장성지역 정체성의 토대 위에 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홍길동이라고 하는 인물의 역사적 고증과 고고학적 발굴 작업을 통해

획득한 연구사적 근거를 기반으로 '홍길동의 고장, 장성'이라고 하는 또 다른 지역정체성과 상징구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홍길동축제 개최 이전까지 호남사립의 중심지 또는 선비정신의 지역전통을 강조하는 이 지역 특유의 보수적이고 정적인 이미지는 축제를 통해 홍길동이 만민평등 사상을 주장했던 '의'로운 인물임과 동시에 일본 오키나와 열도를 지배한 영웅적인 인물임을 부각시키면서 내·외부적으로 '홍길동의 고장, 장성'이라고 하는 이미지의 상품화와 지역민들의 정체성의 구축으로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장성은 홍길동 생가터 발굴과 역사적 고증자료 수집을 통한 연구사적 토대 구축, 홍길동축제의 개최 등을 통해 '선비고을, 장성'이 갖는 지역경관 위에 홍길동 생가터 발굴과 홍길동캐릭터 개발 등 새로운 지역경관을 창출하고 있고, 이를 통해 보다 역동적인 지역이미지 및 지역상징의 재구성과 '홍길동의 고장, 장성'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지역전통을 창출하고 있다.

4. 홍길동 관련 문화전략의 쟁점과 현실

홍길동축제는 예로부터 '선비의 고장'과 '의향'의 전통을 장성지역의 오랜 지역정체성으로 정립시켜 온 토대 위에 90년대 후반 홍길동전의 주인공 홍길동의 생가터 발굴과 캐릭터 개발 등 일련의 문화전략을 통해 '홍길동의 고장, 장성'이라는 새로운 지역상징과 전통의 재창출이라는 일련의 흐름 속에 놓여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의'를 실천한 선비의 고장, 장성에서 만민평등의 사상을 실현코자 했던 의적 홍길동의 고장, 장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축제라고 하는 스펙터클하고 역동적인 이벤트와 결합되면서 빠른 속도로 이 지역의 지역상징과 정체성으로 재구성되고 있다. 홍길동 생가터와 캐릭터상품 판매 등으로 연계되면서 축제의 공간을 활성화시키고, 지역민을 포함한 축제방문객들에게 '홍길동의 고장, 장성'의 이미지와 상징을 홍보함과 동시에 이를 상품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홍길동축제는 올해(2003년 현재)로 5회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홍길동의 고장, 장성'이라고 하는 지역전통의 재구성과 현재적 활용이

라는 측면에서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강릉시와의 홍길동 연고권 논쟁을 시작으로 가속화되었던 '장성출신, 홍길동'에 관한 연구사업과 생가터 발굴 작업, 홍길동캐릭터 개발 등의 문화전략이 외부적 이미지를 강화시킨 축제를 통해 유기적으로 결합되면서 비교적 단기간에 홍길동 담론이 지역전통과 정체성안으로 흡수된 점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과정에서 민간구담 또는 전설로 존재하던 장성출신 홍길동에 관한 담론의 현실화를 주도했던 세력은 장성군과 연세대 국학연구원이었다, 이 두 집단의 만남은 강릉시와의 홍길동 연고권 논쟁으로 중앙 및 지역 언론의 관심을 받으면서 탄탄한 결속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강력한 장성군의 후원을 바탕으로 중앙의 전문가 집단으로써 연세대 국학연구원과 지역 언론은 장성과 홍길동 담론의 유기적 결합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 성과를 발표하면서 외부적으로는 장성출신의 실존인물인 '홍길동의 고장, 장성'을 홍보하고, 내부적으로는 홍길동과 관련된 일련의 문화전략의 타당성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으로 근거로 활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그동안 장성의 선비전통과 의향전통을 지역 정체성으로 확립하는데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향문회와 장성문화원 등의 지역향토사 단체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면서 장성과 홍길동 담론은 이제 홍길동축제라고 하는 역동적이고 외부적인 이미지를 강화시킨 이벤트와의 결합을 통해 장성의 또 다른 지역전통과 지역상징으로 재구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장성군과 연세대 국학연구원에 의해 주도적으로 진행되었던 홍길동과 관련된 일련의 문화전략은 초창기 홍길동 캐릭터 개발과정에서 홍길동을 지역영웅으로 부각시키고, 그 행적을 의적으로 미화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 유림들과 문중 집단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이들은 대부분 조선 후기부터 장성지역의 제반 향촌지배조직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4성씨인 울산 김씨, 광산 김씨, 황주 변씨, 행주 기씨 등의 유력사족들로 그동안 장성의 선비정신과 의향의 전통을 확립하는데 주체가 되었던 세력들이다. 이들의 불만은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홍길동이 무슨 의적이냐, 도적일 뿐이다... 그리고 장성의 많은 자랑거리들 중에서 왜 하필 역적이자 도적이었던 홍길동을 지역상징으로 내세우느냐... 모름지기 장성에서는 홍길동을 내세운 지역축제보다 필암서원을 비롯한 서원에서 글소리가 나아지 제대로 된 장성이라고 할 수 있지...

이들은 홍길동이 실존인물이고, 장성출신이라는 점에는 거부감이 없었지만, 신분체제의 모순을 고발하고, 역모를 꿈꾸었던 도적을 장성의 상징적인 인물로 부각시키는 캐릭터 사업 등에는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들은 유림들이 다수 분포되어 있는 군의회의 예산책정 과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하였고, 홍길동 관련 문화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했던 당시 장성군수에 대한 비난여론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장성군에서는 199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홍길동 생가복원사업인 홍길동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함께 이 지역의 대표적인 국가사적인 필암서원 성역화 사업도 이와 병행하여 추진 중에 있다. 필암서원은 오랫동안 장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인 하서 김인후를 배향하고 있으며, 문향이라고 하는 지역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이 지역의 다수의 서원 중에서 그 명성과 역사적 가치가 가장 두드러진 서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필암서원이 갖고 있는 이러한 자원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주변 정비사업이나 명소화 사업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90년대 후반 언론과 지방정부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매우 빠른 속도로 추진되었던 이 지역의 홍길동과 관련한 일련의 문화전략에 비해 이 지역의 오랜 전통을 상징해왔던 필암서원을 비롯한 다수의 서원과 사우에 대한 상대적인 무관심은 이 지역 유림들의 반감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당시 홍길동에 대한 외부적 관심의 집중과 이를 지역이미지 제고와 홍보에 적극 활용코자 했던 장성군의 강력한 정책의지는 홍길동 학술용역사업과 홍길동 생가터 발굴, 그리고 캐릭터 개발을 빠른 속도로 진행시켜 나갔고, 마침내 이러한 성과를 외부에 적극 알릴 수 있는 홍길동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지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데 성공하였다. 당시 최초로 홍길동 관련 사

업을 공무원 제안제도에 건의하였고, 채택된 후 홍길동축제를 기획하고 추진하였던 변법석씨(현 장성문화원장)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초창기 홍길동과 관련한 캐릭터 사업, 생가터 발굴 그리고 홍길동축제를 기획하면서 홍길동을 장성출신의 지역영웅, 혹은 의적으로 묘사하는데 대한 일부 지역민들 특히 유럽들의 거부감이 상당했지요... 우리 고장엔 해서 김인후 선생을 비롯한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왜 하필 서얼출신의 도적, 역적이었던 홍길동을 내세우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감이나 부정적인 시각도 축제를 통해 장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캐릭터 사업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지역역군이 형성되면서 점차 없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엔 외지인들이 장성하면 단풍, 백양사 정도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요즘은 축제와 캐릭터 때문인지 홍길동하면 장성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지역민들도 이러한 점을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장성에서는 지방자치와 지역 활성화 전략에서 홍길동이라고 하는 새로운 지역상징을 창출하고 이를 축제화 함으로써 보다 역동적이면서 대중적인 지역이미지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장성은 이제 홍길동 담론의 구체적인 현실화, 즉 축제화를 통해 오랫동안 장성의 지역정체성과 상징으로 대표되었던 선비정신과 의향전통이 홍길동의 고장, 장성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지역전통과 서로 경합하거나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복합적인 지역상징을 창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성지역의 선비정신과 의향전통의 담론적 전개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이 지역의 새로운 지역정체성의 담론위로 자리 잡은 홍길동 담론은 축제화 과정을 비롯한 일련의 문화전략의 핵심적인 근거가 되었던 지역 활성화를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정착되면서 내부적으로는 지역통합과 외부적으로는 지역이미지를 제고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5. 결론

지금까지 본 연구는 전남 장성군의 홍길동축제를 사례로 축제화 과정을 통해 지역상징 및 지역

정체성이 어떻게 재구성되고 이것이 또 현재의 지역사회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를 고찰하였다. 장성은 오늘날 한국의 농촌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활성화운동에서 지역적 상징을 비교적 잘 활용하고 있는 사례지역으로 조선의 유림 중 뛰어난 인물 중의 하나인 해서 김인후의 고향이라는 사실과 그를 배향하고 있는 필암서원의 존재로 인해 오래 전부터 소위 '선비의 고장'으로 알려져 왔으며, 한말 동학군의 활동에서 중요한 전기가 마련된 황룡강 전투 지역이었으며, 최근에는 그 기념비가 세워진 지역이다. 그리고 이 곳은 기삼연, 기정진, 기우만 등으로 이어지는 한말 의병의 중요한 근거지였다는 사실로 인해 근래에 '의향'으로 정립되어 왔다. 또한 이 곳은 최근 홍길동전의 주인공인 홍길동의 생가로 추정되는 곳이 발굴되면서 홍길동을 지역캐릭터로 삼고, 홍길동을 주제로 한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꾀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홍길동축제는 장성의 오랜 지역정체성으로 상징되어온 '선비정신', '의향'의 전통이 최근 '홍길동'이라고 하는 역동적인 지역영웅을 매개로 결합되면서 장성지역의 또 다른 지역이미지와 상징의 창출이라고 하는 일련의 흐름 속에 놓여 있다. 이러한 경우 지역정체성의 역사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은 과거 역사적 경험과 사실에 기초한 전통과 문화가 다양한 물리적 지역경관과 함께 어떻게 현재의 지평에서 불러내져 활용되는가, 그리고 전통의 활용을 통해 지역민들의 정체성 확립의 노력이 어떤 맥락에 놓이느냐에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장성에서 진행되고 있는 장성출신의 실존인물 홍길동에 관한 문헌사적 고증작업과 고고학적 발굴 작업, 그리고 홍길동축제의 개최 등으로 획득한 지역전통의 창출 및 활용은 현재적 이해와 역사적 사실이 경합됨으로써 지역이미지와 상징을 강화시키고 지역정체성을 형성하는 매개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장성지역의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전통과 문화는 지역상징이나 정체성으로 재구성되면서 서로 경합하거나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특히 홍길동축제는 예로부터 '선비의 고장'과 '의향'의 전통을 장성의 오랜 지역정체성으로 정립시켜온 토대 위에 최근 '홍길동의 고장, 장성'이라는 새로운 지

역상징과 전통의 창출이라는 일련의 흐름 속에서 중요한 매개기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초창기 홍길동과 관련한 문화전략은 이 지역 특유의 보수적인 정서를 대변하는 유림세력과 문중집단의 거부감과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장성군의 강력한 주도력을 뒷받침으로 홍길동 캐릭터사업과 축제개최로 인해 과급되는 지역홍보와 지역 활성화의 타당성과 근거를 지역민들에게 제시하면서 긍정적인 지역여론을 이끌어 내고 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현재의 지역축제가 가진 지역 발전의 시장지향적 성격, 즉 지역 활성화라는 구체적인 명분이 강력하게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올해로 5회째라는 비교적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홍길동축제는 장성군을 대표하는 지역축제로 자리 잡아 가면서 홍길동 캐릭터를 이용한 지역로고, 생가터의 관광자원화 등 이와 관련한 다양한 지역문화경관을 창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성은 이 지역의 오랜 전통을 상징해왔던 필암서원을 비롯한 다수의 서원 및 사우에 대한 정비작업과 명소화 사업과 함께 홍길동 생가터와 주변 유적지를 연계하는 관광루트 개발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부면을 아우를 수 있는 전략도 함께 펴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축제를 통해 지역의 전통과 문화적 자원을 상품화함으로써 창출되는 지역 활성화 전략에 있어서 홍길동축제의 정착과 성장은 앞으로 '홍길동의 고향, 장성'이라고 하는 지역상징과 정체성의 전략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점할 것으로 판단된다.

장성은 현재 오랫동안 이 지역의 정체성과 상징의 중심에 있었던 '선비의 고향', '의향'에서 홍길동 축제의 역동적이고 외부적인 이미지를 강화시킨 이벤트전략과 축제의 강한 시장지향적 속성이 창출하는 지역 활성화라는 명분 앞에 '홍길동의 고향, 장성'이라는 전통의 창출과 재구성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홍길동축제는 이제 전통의 재구성과 현재적 활용이라는 차원에서 그동안 이 지역의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전통과 문화를 다양한 물리적 지역경관과 함께 어떻게 현재의 지평에서 불러내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이를 위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에 진정한 지역통합 및 지역 활성화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홍길동의 고

향, 장성'을 상징하는 홍길동축제가장성의 지역 정체성 및 지역상징의 역사에 있어서 현재의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새로운 전통의 창출을 위해 끊임없이 검토하고 제기되어야 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註

- 1) 일반적으로 국내의 지역축제에 대한 접근 방식은 축제를 상품화하고 판매할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는데 관심을 갖는 실용주의적 입장과 지역축제가 만들어지고 활성화되는 사회·역사적 맥락 및 과정과 정치적 의미를 밝히는 분석적 연구로 나뉘어 진다. 현재까지 한국에서 축제에 대한 논의는 전자의 흐름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최근 지역축제에 관한 경제주의적 논리가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치·사회·문화적인 효과를 주목하는 연구 또한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정호기, 1999).
- 2) 기묘사화는 1519년(중종 14년)에 발생한 신진사림의 피화(被禍)사건을 말한다. 조광조(趙光祖)를 중심으로 하는 사림 출신의 개혁적 성향을 표방한 신진세력들은 "성현을 본받고 지치의 이상을 부흥시킨다(法聖賢興至治)"는 도학정치를 부르짖고 선비의 원기를 세워 현실정치를 개혁하고자 하였다. 이에 위협을 느낀 남곤(南袞), 심정(沈貞) 등의 훈구대신들이 화를 일으켜 조광조 일파를 숙청한 사건이다. 이때 피화(被禍)를 입은 조광조, 김식(金湜), 기준(奇遵), 한충(韓忠), 김구(金絿), 김정(金淨), 김안국(金安國), 김정국(金正國) 등을 기묘명현(己卯名賢)이라 한다(안진오, 1996, 호남유학의 탐구: 안진오 정년기념 자서집, 이희문화사).
- 3) 『東國輿地誌』, 長城都護府, 風俗條, 박지현, 1993, 조선 후기 장성지방 사족의 동향,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에서 재인용.
- 4) 고봉 기대승은 중종 22년 전남 광주 송현동(현 광주 구 신통동) 출신으로 기묘사화(1519)때 30세의 젊은 나이로 사사당한 명현 복재(復齋) 기준(奇遵)의 조카이다. 고봉 기대승은 퇴계와 사칠논변(四七論辨)을 벌여 조선조 유학의 논쟁을 불러일으킨 인물로 3백년간 대립되었던 주리(主理), 주기(主氣)의 양대 학맥을 출발시켰다고 할 수 있다(문항 제11호, 장성문화원).
- 5) 노사 기정진(1798~1879)은 전북 순창군 북흥면 조동에서 기재우(奇在祐)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1815년(순조 15) 장성으로 이사하여 그곳에서 계속 살았다.
- 6) 국가사적 제242호로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에 소재하고 있다. 하서 김인후를 배향한 서원으로 1590년(선조 23)에 문인들에 의하여 장성읍 기산리에 창건되고, 1786년(정조 10)에 하서의 사위인 고암(鼓巖) 양자강(梁子澂)을 추배하였다. 필암서원은 현종 3년(1662)에 '필암(筆岩)'이라는 사액을 받았으며, 하서

선생이 호남에서 유일하게 문묘에 배향된 점에서도 이 지역의 선비문화를 대표하는 유적이다.

- 7) 장성에는 현재까지 현존하는 서원 및 사우가 총 15개 존재한다. 원래 총 26개가 있었는데 고종 5년(1868)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모두 철폐되어 필암서원만 남았다가 그 뒤 점차 복설되고 몇 곳이 신설되어 현재 20여 개의 원·사가 있으며, 15개소의 유허지가 남아 있다.
- 8) 장성 남문창의는 3차에 걸쳐 일어났는데 당시 상황은 장성군 북이면 사거리 714번지에 유형문화재 제 120호에 지정되어 있는 장성 남문창의비에 그 전말이 기록되어 있다.
- 9) 선비정신에서 의병정신으로 이어지는 장성 지역정체성에 있어서 그 핵심이 되고 있는 '의(義)정신은 남문창의의 맹주 김경수가 1차 남문창의 당시 남문에 의병청을 설치하고 곳곳에 보낸 격문 내용 중에서 특히 "오직 義라는 한 글자를 마음에 두라"고 강조한 것과 금산전(錦山戰)에서의 마지막 훈시 내용 중 "오늘은 다만 한번 죽음이 있을 뿐이다. 죽고 싶과 나아가고 몰려섬을 '義'라는 글자에 부끄럽지 않게 하라"고 언명한 점에서 그 성격이 잘 드러난다(향토문화 7집, pp.28-29).
- 10) 1982년 장성 남문창의 390주년 기념 학술강연회와 기념호로 발간된 『향토문화』 7집에서는 "남문창의는 향토 장성 남문에 60-70가(家)의 대표적 선비들이 집단적으로 모이고 지방관장파도 합의를 가운데 서로 돕고 추대하여 의병활동을 전개한 점은 당시 전국적인 의병활동 중에서도 매우 특기할 만한 예로 제시하면서, 장성의 '선비정신'이 '남문창의'라고 하는 의병활동으로 발현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향토문화 7집, 1982, p.24).
- 11) 이러한 주장은 1987년 장성문화원이 '장성문화의 특질과 그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대토론회의 자료집에서도 자주 확인된다. 당시 토론회의 결론은 "장성의 의병정신은 장성인의 중요한 특질 가운데 하나이며, 이는 장성선비의 실천적 유교사상에서 나온 것으로 오늘날 장성인의 중요한 기질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사실의 역사적 전개과정 및 앞으로의 발전방안 등을 모색하는데 토론회의 중점이 두어졌다(장성문화원, 1987, 문향 2호, pp.19-25).
- 12) 장성 황룡강 전투는 1894년 음력 4월 22일 전남 장성군 황룡면 월평에서 관군과 벌인 전투로 1차 동학농민봉기 중 가장 큰 승리를 거둔 전투이다. 농민군이 장성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양호초토사(兩湖招討使) 홍계훈은 대관(隊官) 이학승(李學承) 등에게 관군 3백명을 주면서 농민군을 공격하라고 명령하였다.(전남동학농민혁명사, 1996, 이상식 외, 전남대학교 출판부; 장성군사, 2001).
- 13) 대표적으로 1973년 결성되어 문향과 '의향'으로 상징되는 지역정체성의 형성과 정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장성 <향토문화개발협의회>가 펴낸 지역문화잡지인 「장성 향토문화」 창간호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의 문헌 및 자료집과 장성 문화원의 「문향」 창

간호(1986)부터 현재까지의 자료집 등을 들 수 있다. 동학농민혁명 당시의 폐정개혁기구를 말한다. 집강소에서는 탐관오리의 징계, 신분제의 폐지, 횡포한 부호의 처벌, 삼정의 개혁 등의 활동을 수행했다. 집강소는 농민 스스로가 평등사회와 봉건의 질곡을 벗어 나기 위해 폐정개혁을 추진한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신용하, 1993, 동학과 갑오농민전쟁연구, 일조각; 동학농민군의 집강소에 대한 일고찰, 1992, 역사학보 133).

- 14) 이는 각 지역별 향토사 연구의 실태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우선 최근 향토사 연구에 있어서 두드러진 활동을 나타내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자생적인 민간연구단체인 '기전향토문화연구회'(1986년 창립)와 '용인향토문화연구회'(1982년 창립) 두 단체가 1989년 9월 '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에 가입하였으며, 1996년 각 시·군의 향토사가 및 전공연구자들의 참여 하에 '경기도향토사연구협의회'가 결성되었다. 다음으로 전북지역의 향토사 연구는 1986년 '전북향토문화연구회'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충남지역에서는 1984년 '충남향토연구회'의 창립과 함께 활발한 활동을 시작했다.(최홍규, 1997, '경기지역 향토사연구의 현황과 방향', 향토사연구의 회고와 전망, pp.8-25).
- 15) 1981년 6월 26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김교수에 따르면, 홍길동은 국적이 극히 문란했던 연산군 때 실존했던 강도로서 그 전설이 1세가 지난 선조 때는 의적으로 변하고, 허균이 홍길동전을 국문으로 지은 선조 말년에는 왕으로까지 신분이 상승하였다. 홍길동이 실존인물이라는 설은 지난 '69년 숙명여대 이능우 교수가 『조선왕조실록』의 연산군일기를 비롯하여...(중략) 그러나 이들 正史는 홍길동을 강도로 지칭하면서...(중략) 홍길동의 일반적인 죄상만 기록하고 있다. 이에 반해 문헌설화는 홍길동이 도적으로 변하게 된 동기와 과정을 비롯하여 그 행적과 활동상황을 구체적으로 적고 있으며, 이 문헌설화에는 허균이 홍길동전을 창작할 때 소재로 삼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풍부하게 들어 있다고 밝혔다."
- 16) 이와 관련된 전설 및 민간 구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남 장성군 장성읍에서 남쪽으로 10km 정도의 거리에 있는 산골마을인 황룡면 아곡리 아치실 마을 뒤 150m 지점에는 몇백년은 족히 된듯한 감나무들과 산죽(일명 신의대)에 둘러싸인 백여 평은 된 집터가 있고, 아직도 토방자리에는 자연석이 무너지지 않고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곳이 홍길동의 생가터라고 전설로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다. 여기에서 마을쪽으로 백여 미터 지점에 있는 암탉굴(일명 밥굴) 입구 개울가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끊이지 않고 흐르는 조그만 샘이 있는데, 이곳이 홍길동이 먹고 자랐다는 홍길동샘이다. 옛날에는 이 샘을 아곡리 주민들이 마을우물로 사용하기도 했다. 원래 아치실에는 처음 배씨들이 살았었는데, 배씨들이 이곳을 떠나면서 그들의 묘지를 표시하기 위해

돌배나무를 심었고, 그 후 홍씨들이 살다가 홍길동이 강도로 잡혀가자 마을이 풍지박산 되어 홍씨들이 뿔뿔이 헤어지면서 역시 그들의 묘지에 산죽(山竹)을 심어 표시했다고 전해져 온다. 지금도 홍길동의 생가터 등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산죽을타리는 집을 지키는데도 훌륭한 방어벽이 될 뿐만 아니라 유사시에는 화살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산죽을 심었다고도 전해진다. 또한 장성을 장안리에 있는 변씨 선조들의 묘지상석 중에는 당시 주인이 없는 홍씨의 고향에서 비석을 옮겨다 묘지 상석으로 썼다는 구전이 내려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북하면 단전리에 살고 있는 한국고문연구회 회장이자 향토사학자인 변시연은 ‘우리 선조가 남의 묘 앞에 있는 비석을 가져다 상석으로 썼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인데도 지금까지 구전으로 전해지는 것만 봐도 홍씨들의 고향에 대한 유래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라고 말하고 있다. (전남의 전통문화하권, 1983년, 광주일보사 출판).

- 18) 당시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강릉시의 홍길동 관련 연구권 주장은 다음과 같다. “오랜 기간 신사임당과 그의 아들 율곡의 신화가 도시의 상징처럼 알려진 강원 강릉시가 ‘역모’를 피하는 이들이 나오는 소설 주인공을 시의 상징으로 세우고 이미지 제고에 나섰다. … 강릉시는 조선조 때 허균이 쓴 소설의 주인공인 홍길동의 캐릭터를 상품화하기로 하고, 상징 로고와 마스코트 도안을 현상 공모했다. 홍길동 캐릭터 현상공모를 통해 가상의 인물인 홍길동 연구권을 공개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1997년 3월 29일자 한겨레신문).
- 19) 1997년 3월 한겨레신문에 처음 기사화된 강릉의 홍길동 연구권주장을 반박하는 장성군의 대응기사가 같은 해 4월 조선일보에 “때 아닌 홍길동 고향논쟁”이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로 실리면서 이후 지역신문을 비롯하여 한국일보, 서울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그리고 시사저널 등 각 중앙일간지와 주간지들은 이를 상당기간 기사화하였다.
- 20) 장성군청이 배재대학교 관광이벤트연구소에 의뢰한 제5회 장성 홍길동축제 축제평가 및 방문객 분석 결과 중 ‘땀목타기’가 홍길동축제 프로그램 만족도 분석에서 전체 평균 5.88(7점 척도)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1) 이는 장성군청이 배재대학교 관광이벤트연구소에 의뢰한 제5회 장성 홍길동축제 축제평가 및 방문객 분석 결과 중 쇼핑품목에 대한 조사결과를 인용한 것이다.

文 獻

고석규, 1997, 영산강유역의 장터문화와 남도민의 삶, 향토문화, 17, 향토문화개발협의회.
 광주광역시, 1995, 하서 김인후의 도학과 문학사상.
 광주일보사, 1983, 전남의 전통문화 하권.

국립광주박물관, 2000, 광산김씨 집성촌의 역사와 민속.
 김희태, 1993, 전남지방의 향토사연구의 현황, 전남지방의 향토사연구, 향지사.
 금장태, 2000, 한국의 선비와 선비정신, 서울대학교 출판부.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1974, 동학농민혁명의 지역적 전개와 사회변동, 새길.
 박지현, 1993, 조선후기 장성지방 사족의 동향,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설성경 외, 1997, 실존인물 홍길동의 생애 재구 (I)-출생과 성장, 국내 활동부분을 중심으로, 東方學志, 96, 연세대 국학연구원.
 설성경, 1999, 호남인물을 소재로 한 고소설 -홍길동전 모델 관련 기록을 중심으로-, 고문연구, 12, 한국고문연구회.
 송정현, 1982, 임진왜란의 호남의병활동 - 초기의 병을 중심으로-, 향토문화, 7 장성 향토문화개발협의회.
 신용하, 1993, 동학과 갑오농민전쟁연구, 일조각.
 신용하, 1993, 동학농민군의 집강소에 대한 일고찰, 역사학보 133.
 안진오, 1996, 호남유학의 탐구 : 안진오 정년기념 자저집, 이회문화사.
 안진오 외, 1998, 장성황릉, 향토문화개발협의회.
 이병직, 1983, 장성군 마을사 연구의 실제, 향토문화, 8집, 향토문화개발협의회.
 이상식 외, 1996, 전남동학농민혁명사, 전라남도.
 이영민, 1999, 지역정체성 연구와 지역신문의 활용 -지리학적 연구주제의 탐색-, 한국지역지학회지 5(2), 1-13.
 이을호, 1980, 한국철학사상과 장성문화권, 향토문화, 6, 향토문화개발협의회.
 이이화, 1995, 동학 농민전쟁 과정에서 나타난 장성 전투의 의미, 호남문화연구, 23, 전남대 호남문화연구소.
 이정덕, 1998, 지역축제와 지역정체성, 축제, 민주주의, 지역활성화, 정근식 편저, 새길.
 이해준, 2001, 지역사와 지역문화론, 문화닷컴.
 장성군청, 1982, 내고장 전통가꾸기.
 장성군 교육청, 1979, 장성 선비의 얼, 전남일보사 출판국.

- 장성군청, 1997, 장성군 마을사 -황룡면편-.
- 장성군·조선대학교 박물관, 1999, 장성군의 문화유적.
- 장성군청, 2001, 장성군사.
- 장성문화원, 문향, 창간호(1986)-제11집.
- 장성군청, 1998, 지방행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C·I, B·I 및 캐릭터 개발방안 -전남 장성군에서 추진한 개발과정을 사례로-, 장성군.
- 장성군청, 2002, 홍길동 국제학술 심포지움 자료집.
- 장성군청·장성홍길동축제추진위원회, 2003, 제5회 장성홍길동축제 축제평가 및 방문객 분석 결과 보고서, .
- 정근식, 1996, 지역정체성과 상징정치, 경제와 사회, 30, 140-166.
- 정근식, 2001, 지역사회 장기구조사의 구상 -구립을 중심으로-, 호남문화연구, 28, 19-92.
- 정선희, 1999, 축제의 담론과 지역정체성에 관한 연구 -강릉 단오제를 주요 사례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과 석사학위논문.
- 정은주, 1993, 향토축제와 '전통'의 현대적 의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호기, 1999, 지역축제의 활성화와 문화정치 -광주·전남의 지역축제를 사례로-, 축제, 민주주의, 지역활성화, 정근식 편저, 새길.
- 조명래, 1996, 지역정체성과 지역운동, 공간과 사회, 7.
- 최홍규, 1997, 경기지역 향토사연구의 현황과 방향, 향토사연구의 회고와 전망, 8-25.
- 향토문화개발협의회, 장성 향토문화, 창간호(1973)-제3호(1976년).
- 향토문화개발협의회, 향토문화, 제4호(1977년)-제12호(1992년).
- 흠스봄(최석영 역), 1995, 전통의 날조와 창조, 서경문화사.
- 황병성, 1998, 산과 물이 어울려 스스로 하늘을 이룬 장성, 장성문화원.
- <http://www.changsung.chonnam.kr>

(접수 : 2003. 7. 29, 채택 : 2003. 10. 2)